

죽도문제연구회의 실상과 허상

- 좌장 시모조 마사오(下條政男)를 중심으로 -

손 경 호*

(e-mail : shon1205@hanmail.net)

< 목 차 >

- | | |
|------------------------|-----------------------------|
| 1. 들어가기 | 4. 좌장 시모조 마사오의 주장과 허구 |
| 2. 연구 목적 및 방법 | 4.1. 약력 |
| 3. Web죽도문제연구소와 죽도문제연구회 | 4.2. Web죽도문제연구소 기고문 |
| 3.1. Web죽도문제연구소 | 4.3. 기고문에 나타난 독도에 대한 주장과 허구 |
| 3.2. 죽도문제연구회 | 5. 나가기 |

キーワード：独島(Dokdo), 竹島(Takeshima), Web 竹島問題研究所(Web Takeshima issue Research), 竹島問題研究会(Takeshima issue Study Group), 下條正男(Shimojo Masao)

1. 들어가기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반응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 황당무계한 궤변이며 한반도 침략을 획책하려는 의도적인 도발이라고 보고 있다.¹⁾ 일본이 한때 강탈해 간 적이 있기는 하지만, 독도는 엄연히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대한민국 땅이라는 것이 우리 국민 모두의 인식이다. 그렇지만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에는 이러한 국민의 인식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인터넷 신문 뉴스타파의 ‘독도예산 일본보다 많이 쓰기도 뒤통수 맞는 이유’라는 기사에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 한국외국어대학교, 외래교수, 일본어학

1) 2012년 9월 28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일외무장관 회담에서 당시 김성환 외무장관은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배화하면서 첫 번째 희생물이 사실 독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일본이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한국에 대한 제2의 침탈로 본다." 라고 말했습니다. YTN 2012.9.28. http://www.ytn.co.kr/_ln/0104_201209280945258342(검색일2017.1.16.).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 우기는 일본의 억지 주장이 나올 때마다 “우리 정부는 대체 뭘 하는가”며 답답해했던 경험 많으실 것입니다.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사실은 역사적으로도, 실효적 지배 측면에서도 명명백백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독도가 한국과 일본의 분쟁 지역인 것처럼 독도문제를 국제 사회에 부각시키기 위한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여론몰이를 통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까지 끌고 가겠다는 속셈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도 다양한 독도 관련 사업을 벌이기는 합니다. 뉴스타파가 올해 정부의 독도 관련 사업 예산을 추려보니 모두 17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2014 회계연도 예산에 ‘영토문제 대책비’라는 명목으로 10억 엔, 우리 돈 약 1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우리가 더 많은 돈을 쓰는 셈입니다.

(중략) 이처럼 실효성이 의심되는 건설 사업들에 ‘독도 예산’이 쏟아지고 있고 정작 일본 정부의 도발에 맞선 독도 관련 연구와 국제 홍보 사업은 등한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외교부는 독도 영유권 수호 연구를 위해 매년 10억 원을 쓰고 있지만 연구는 매년 같은 주제, 같은 내용으로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습니다. 또 매년 일본해 대신 동해 표기를 사용하도록 국제사회에 홍보하는 사업도 진행되고 있지만 그 성과는 2009년 이후로 한 번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응하겠다며 예산은 투입하고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성과를 냈는지는 알 길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정부가 독도 수호에 대한 국민적 열망은 외면한 채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헛돈 쓰기에 열중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입니다.’²⁾

위 기사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건설 사업에 대부분의 예산이 투입되고, 독도 관련 연구와 국내외 홍보 사업은 등한시되고 있다. 울릉도에 있는 독도 관련 전시 공간만 1997년에 개관한 독도박물관, 2013년에 개관한 안용복 기념관, 2016년 8월 개관 예정이었던 독도의용수비대 기념관³⁾ 등 3곳이다. 전시 공간이 늘어나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전시할 만한 사료가 부족하고, 방문객이 적다는 것이 문제이다. 바꾸어 말하면 하드웨어는 갖추었지만, 소프트

2) 뉴스타파 2015년 1월 20일 <http://newstapa.org/22977>(검색일2016.9.15.)

3) 독도의용수비대 기념관은 국가보훈처가 12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14년 8월 25일 기공식을 가졌고 2016년 8월 개관할 예정이었으나, 시공사와의 공사비 문제로 1층 골조공사만 끝내고 공사가 중단된 상태임. (독도의용수비대 기념관 공사 중단, 정부에선 뭐하나? 2016년 6월 23일(목) 오후 6시 10분 포항MBC 라디오 열린 세상 : 울릉군발전연구소 <http://cafe.daum.net/baesangyong> 참조) (검색일2016.9.15.)

웨어나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것이다.⁴⁾ 이러한 현상은 독도 관련 사업이 체계적으로 운용되고 있지 못하는 것을 반증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독도 관련 사업의 운용에 있어서 비교 대상으로 삼을 만한 일본 시마네 현 Web죽도⁵⁾문제연구소의 운용상황을 소개하고, 활동의 주축인 죽도문제연구회의 실상과 허상을 연구회 좌장 시모조 마사오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및 방법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격화된 것은 2012년 아베 정권이 출범하면서부터이다. 2013년 4월 ‘영토와 주권을 둘러싼 내외발신에 관한 유식자 간담회’를 설치하였고, 6월에는 독도 문제와 관련한 최초의 내각부 여론조사가 실시되었으며, 10월 31일에는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담은 홍보 동영상을 만들어 영문판을 공개하였다. 11월에는 ‘영토와 주권을 둘러싼 내외발신 강화를 위한 이니셔티브’가 발표되었다. 2015년 4월에는 일본의 독도 영유가 언급된 중학교 역사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했다.⁶⁾ 이러한 일본정부 차원의 공세 강화에는 시마네 현의 다케시마(竹島)의 날⁷⁾ 조례 제정과 더불어 지방정부 차원의 독도에 대한 연구와 전시, 홍보가 체계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뒷받침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연구, 전시, 홍보 등의 관점에서 일본 시마네 현 Web죽도문제 연구소와 죽도문제 연구회의 활동내용을 살펴보고, 연구회 좌장인 시모조 마사오의 독도 문제에 대한 주장을 고찰함으로써 죽도문제연구회의 실상과 허상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 경상북도 독도연구기관 통합협의체 편(2017) 『독도 영토에 대한 일본의 영토 내셔널리즘 비판』 제이앤씨, pp.158-159.

5) ‘독도(獨島)’에 대하여 일본에서는 ‘다케시마(竹島)’라고 부르고, 한국식 한자음으로는 ‘죽도’가 된다. 이 논문에서는 원문과 관계없이 ‘독도’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다케시마’ 또는 ‘죽도’로도 표기한다.

6) 와다 하루키 외, 김원민 외 역(2015) 『독도 문제는 일본에서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가』 제이앤씨, pp.21-22.

7) 1905년 2월 22일 독도를 일본 제국 시마네 현으로 편입 고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2005년 3월 16일에 시마네 현이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조례 제정했다.

연구 방법으로는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와 일본 시마네 현 홈페이지의 Web죽도문제연구소 그리고 죽도문제연구회의 좌장 시모조 마사오의 기고문을 대상으로 고찰한다.

3. Web죽도문제연구소와 죽도문제연구회

3.1. Web죽도문제연구소

시마네 현 홈페이지에 Web죽도문제연구소의 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경위 설명을 하고 있다.

Web죽도문제연구소란 2005년 3월 시마네 현 의회에서 「다케시마의 날을 정하는 조례」가 가결되고, 그것을 계기로 시모조 마사오(下條正男) 다큐쇼큐(拓殖)대학 교수를 좌장으로 하는 죽도문제연구회가 같은 해 6월에 발족했습니다.

이 연구회는 한국과 일본의 독도문제에 관한 논점 정리를 중심으로 한 「독도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중간보고」를 2006년 5월에 작성함과 더불어, 한일양국의 구체적인 논쟁점에 깊이 파고든 논증, 「기죽도사략(磯竹島事略)」 「죽도기사(竹島紀事)」라고 하는 귀중한 사료의 전문독해, 울릉도 현지조사에 입각한 그림, 지도로부터의 울릉도·독도의 역사적 분석 등으로 이루어진 「독도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최종보고서」를 2007년 3월에 작성하여 활동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조사 연구해야 할 과제가 아직 남아 있는 것과 더불어 이 문제에 관심을 깊게 가졌던 사람들과의 논의를 깊게 하거나 정보교환을 하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목소리가 다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목소리에 응답하기 위해 인터넷을 활용하여 독도문제연구회의 연구 성과와 최신 연구정보, 시마네 현의 주장들을 공개하는 「Web죽도문제연구소」를 시마네 현의 홈페이지 안에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독도문제에 대해서 공통적인 인식의 조성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을 바랍니다.⁸⁾

8) Web죽도문제연구소의 일본어 원문에서 발췌한 것으로 필자가 한국어로 번역한 것임. 이하 일본어 원문은 지면 관계상 생략하고 필자에 의한 한국어 번역문만 제시하기로 한다.

<http://www.pref.shimane.lg.jp/admin/pref/takeshima/web-takeshima/takeshima01/>(검색일2016.9.12.)

위의 언급처럼 사마네 현 Web죽도문제연구소는 시마네 현의 다케시마 날조례 제정과 죽도문제연구회의 발족에 기인한 것이다. 시마네 현의 홈페이지는 일본어 외에 영어, 중국어, 한국어, 러시아어로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Web죽도문제연구소는 일본어만 제공하고 있고, 기타 외국어 서비스에서는 죽도문제를 링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Web죽도문제연구소 홈페이지는 TOP, Web죽도문제연구소란, 시마네의 활동, 조사연구, 팸플렛·연수, 죽도자료실, 죽도문제에 대한 의견, 링크집 이라는 8개의 디렉토리로 구성되어 있고, 그 아래에는 다음과 같이 하위 디렉토리가 있다.

- 시마네의 활동 : 시마네 현 내외의 독도 관련 상황과 보도 정보, 독도와 북방영토 반환요구운동 시마네 현 대회
- 조사연구 : 죽도문제연구회 보고서, 스기하라(杉原)통신, 연구스태프, 연구협력원으로부터의 보고, 실사구시, 열 가지 독도의 허위, 죽도의 진실과 독도의 허위
- 팸플렛·연수 : 연수(죽도문제를 생각하는 강좌, 죽도문제에 관한 연수회·파넬전), 팸플렛(독도문제 팸플렛, 독도문제 책자, 외무성작성 독도계발 팸플렛, 독도문제 계발포스터), 독도 관련사진(1953년 6월 시마네 현과 해상보안청이 합동으로 세운 영토제찰, 독도에서의 강치 어획, 1905년 2월 22일 시마네 현 고시 제40호, 아세아소동양도, 개정일본오지노정전도)

아래 그림은 시마네 현 Web죽도문제연구소 홈페이지의 메인화면과, 한국어 서비스의 다케시마 링크 화면이다.



島根県
Shimane Prefectural Government

站内搜索

[サイトマップ](#)
[カレンダー\(外部サイト\)](#)

広 告 教員採用 試験対策
 東京アカデミー 広島校 松江教室

トップ
防災・安全
観光
子育て・教育
医療・福祉
くらし
しごと・産業
環境・県土づくり
県政・統計

トップ > 県政・統計 > 県情報 > 竹島関係 > Web竹島問題研究所
【総務課】

かえれ 島と海



Web竹島問題研究所

Web Takeshima issue Research

TOP
Web竹島問題研究所とは
島根の活動
調査研究
パンフレット・研修
竹島資料室
竹島問題への意見
リンク集

竹島の位置



竹島は日本の領土です



2月22日は「竹島の日」です
 2016(平成28)年は竹島の島根県告示から111周年です
 韓国による不法占拠から63年目です

■ 島根の主張「竹島は日本の領土です！」

February 22nd is "Takeshima Day"
 2016 is the 111th year since Shimane publicly announced its ownership of Takeshima.
 It is the 63rd year since Korea's illegal occupation.

■ **Shimane's Claims "Takeshima is Japanese Territory!"**

竹島の今日の天気

リンク集

管理者へのお問い合わせ

サイトマップ

トピックス(新着)

<그림1> 시마네 현 Web죽도문제연구소 홈페이지

돌아오라! 다케시마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입니다.~

[JAPANESE](#)

[ENGLISH](#)



- 다케시마란?
- 하루 빨리 영토권 확립을
- 역사적으로 보아도 일본의 영토입니다.
- 국제법에 비추어 보아도 일본의 영토입니다.
- 다케시마 연표

더 자세한 것은 다음의 팸플릿을 봐 주세요!



[다케시마의 문제에 대한 팸플릿 「다케시마」 \(PDF\)](#)

(Link)

외무성이 작성한 팸플릿입니다. (PDF)



(2008년 2월)

(그림을 클릭해 주세요. 외무성의 홈페이지로 링크합니다.)

문의

690-8501 시마네현 마쓰에시 도노마치1번지 시마네현 총무부 총무과
총무예산 그룹
전화:0852-22-6766 팩스:0852-22-5911

<그림2> 시마네 현 홈페이지내의 한국어 서비스 죽도링크 화면

3.2. 죽도문제연구회

죽도문제연구회는 시마네 현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한 1905년 2월 22일 ‘시마네 현 고시 제40호’가 고시된 지 100주년이 되는 2005년 3월에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는 조례를 발표한 후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가 아니라는 근거와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라는 증거와 논리를 정착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다.⁹⁾ 죽도문제연구회 설치의 경위와 취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다케시마(竹島)의 날을 정하는 조례」가 시마네 현 의회의원 35명의 연명에 의해 의원제출 제1호 의안으로서, 2005년 2월 23일 개회의 제402회 시마네 현 의회에 제안되어, 3월 16일에 가결되고, 3월 25일 시마네 현 조례 제36호로서 공포·시행되었다.

이 조례의 시행에 의해 시마네 현은 죽도문제에 대한 국민 여론의 계발을 위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게 되었다.

한편 죽도문제에 관한 역사적 경과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자료 등은, 다무라 세이자부로(田村清三朗)에 의한 「시마네 현 죽도의 신연구(島根県 竹島の新研究)」(1965년 「시마네 현 죽도의 연구(島根県竹島の研究)」의 복각판으로서 1996년에 시마네 현 발행)가 현존하는 정도였기 때문에, 조례 제정에 따른 사회적인 관심이 모이고, 일본 국내는 물론 한국 미디어의 취재 등이 쇄도하는 중에 죽도문제를 알기 쉽게 설명하는데 고심하였다.

또 시마네 현 지사로부터는 제22회 정책기획회의(2005년 3월 22일 개최)에서 전문가의 힘도 빌어 한국이 주장하고 있는 논점에 대하여 일본 측의 주장을 알기 쉽게 정리하도록 하는 지시가 있었다.

이러한 것으로부터 연도가 바뀐 4월부터 죽도문제연구회의 설치에 착수하여, 5월 24일 지사의 정례기자회견에서 연구회 설치 발표가 있었다. 기자회견에서 지사는 연구와 고찰을 하여 냉정히 논의를 진행해 가기 위한 토대 만들기를 위해서 연구회를 설치할 것, 스스로의 주장을 보강하기 위한 아전인수에 빠지지 않는 것과 더불어 연구의 진척상황을 보면서 한국의 연구자 초빙을 검토하는 것 등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6월 21일에 제1회 연구회를 개최하여 10명의 위원에 의한 죽도문제연구회가 시작되었다.¹⁰⁾

9) 독도본부 엮음(2008) 『Web다케시마문제연구소 연구활동』 우리영토, p.10.

10) Web죽도문제연구소 http://www.pref.shimane.lg.jp/admin/pref/takeshima/web-takeshima/takeshima04/kenkyuukai_houkokusho/takeshima04_00/(검색일2016.9.12.)

이렇게 시작된 죽도문제연구회는 2005년 6월에 설치한 제1기¹¹⁾와 2009년 10월에 설치한 제2기 그리고 2012년 10월에 설치한 제3기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조사연구 활동의 성과로서 「죽도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중간보고서와 최종보고서」를 발행하였다. 보고서에 기재된 활동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2.1 제1기 「죽도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중간보고서」 (2006년 5월)¹²⁾

(1) 논점 정리

- 서장
- 고대에서 근세로 : 「울릉도의 귀속처가 논쟁의 발단」 「모순, 거짓이 내포된 증언」 「고개를 가우똥하게 하는 『우산=죽도설』」
- 근세에서 근대로 : 「죽도의 영유권확립까지의 우여곡절」 「석도는 독도인가」 「우산도는 죽도(竹嶼)가 자연스러운 시각」
- 근대에서 현대로 : 「중요한 의미를 갖는 국제법의 원칙」 「초안단계에서 조선영토로 변경」 「대립을 부추긴 이승만 라인」

(2) 연구회 개최 상황

- 제 1 회 연구회 / 2005년 6월 21일 ~ 제 7 회 연구회 / 2006년 3월 28일

(3) 조사활동의 개요

- 오키(隱岐)지역 현지조사
- 이즈모(出雲)시 다이샤마치(大社町) 옛 가문 소장 그림지도 등의 조사
- 이즈모 시내 옛 가문 소장 그림지도 등의 조사

(4) 위원에 의한 연구 리포트

- 무라카미 가문(村上家) 고문서 「1696년(元祿九丙子年) 조선배 착안—卷之覺書」 읽기 (우치다 후미에(内田文惠)위원)
- 「돗토리번정(鳥取藩政)자료로 본 죽도문제 (안용복의 내번(来藩) 기록」 (다니구치 히로시게(谷口博繁)위원)
- 「그림지도·지도로 보는죽도-한국측 사료를 사례로-」 (후나스기 리키노부(船杉力修)위원)

11) Web죽도문제연구소 홈페이지에는 제1기라는 표기 없이 죽도문제연구회로만 되어 있고, 제2기와 제3기는 표기가 있으므로 이것과의 구별을 위해 편의상 제1기로 적기로 한다.

12) Web죽도문제연구소 (http://www.pref.shimane.lg.jp/admin/pref/takeshima/web-takeshima/takeshima04/kenkyuukai_houkokusho/takeshima04_00/)(검색일:2016.9.12.), 독도본부 위음(2008) 『다케시마문제연구회 중간보고서』 우리영토, pp.17-57.

- 「일본·한국간 표류의 역사와 죽도문제」(스기하라 다카시(杉原隆)위원)
- 「죽도/독도관계사·자료목록」(후쿠하라 유지(福原裕二)위원)

(5) 수집·조사 자료

- 무라카미 가문 「1696년(元祿九丙子年) 조선배 착안一卷之覺書」(아마초(海士町) 무라카미 가문 소장)
- 다카미 가문(高見家) 「삼국통람여지도노정전도(三國通覽輿地路程全圖)」 등 두루마기 그림 (이즈모시(出雲市) 옛 가문 소장)
- 후지마 가문(藤間家) 「대일본해륙전도(大日本海陸全圖)」 (이즈모시 옛 가문 소장)
- 후지마 가문 「1934년 일본지지략(日本地誌略); 교재용 소학교용 지도」 (이즈모시 옛 가문 소장)
- 죽도관계 문서목록 (고문서책자 등·총무과 소장)
- 죽도관계 사진목록 (총무과 소장)
- 돗토리 현립박물관 소장 죽도관계 자료
- 시마네 현립도서관 죽도관계 자료목록
- 제공 자료·연구회 수집 자료목록
- 나이토 세이추(内藤正中) 수집 죽도관계 자료목록

(6) 향후 조사연구 테마

3.2.2 제1기 「죽도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최종보고서」(2007년 3월)¹³⁾

(1) 최종보고에 즈음하여

- 【다케시마의 날】 조례로부터 2년(시모조 마사오)

(2) 연구회 개최 상황

- 제8회 연구회/2006년 5월 30일~제13회 연구회/2007년 3월 27일, 3월 28일

(3) 연구 리포트

① 에도기(江戸期)에 있어서의 죽도문제

- 「오야 가문(大谷家)、무라카미 가문(村川家) 관계문서재고」(스기하라 다카시)
- 「하치에문(八右衛門)、가네모리 겐사쿠(金森建策)、마쓰우라 시로(松浦武四郎)의 「죽도 그림(竹嶋之圖)」에 대해서」(스기하라 다카시)

13) Web죽도문제연구소 (http://www.pref.shimane.lg.jp/admin/pref/takeshima/web-takeshima/takeshima04/kenkyuukai_houkokusho/takeshima04_01/)(검색일2016.9.12.)

- 「돗토리(鳥取) 현립박물관 소장 죽도(울릉도) · 송도(竹島/獨島)관계자료」
(미우라 기오토(三田淸人))
- ② 메이지기(明治期)에 있어서의 죽도문제
 - 「영토편입에 관련하는 여러 문제와 자료 · 사료」 (사사키 시게루(佐々木茂))
 - 오쿠하라 헤키운(奥原碧雲) 죽도관계자료(오키하라 헤키운 소장)을 둘러싸고(쓰카모토 다카시)
 - [자료] 『죽도 경영자 나카이 요자부로 씨 입지전』 1906年(오쿠라하 헤키운)
- ③ 전후에 있어서의 죽도문제
 -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에 있어서의 죽도 취급(쓰카모토 다카시)
- ④ 그림지도 · 지도에서 본 죽도문제
 - 「시마네 현립 고대 이즈모(出雲)역사박물관」 소장 죽도관계지도 (오카 히로시조(岡宏三))
 - 「그림지도 · 지도에서 보는 죽도 (II) (후나스기 리키노부)
- ⑤ 학교교육에 있어서의 죽도문제
 - 「중학교 교과서에 있어서의 죽도에 관한 기재상황의 변화 등과 향후의 과제」 (이토 히로토시)
 - 오키(隱岐)교육위원회발행의 고향교육 부교재 「고향 오키(隱岐)」 (죽도에 관한기술을 발췌)

3.2.3 제2기 「죽도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중간보고서」 (2011년 2월)¹⁴⁾

- (1) 중간보고에 즈음하여
 -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죽도문제 (시모조 마사오)
- (2) 연구회 개최 상황
 - 제1회 연구회/2009년 10월 19일 ~ 제5회 연구회/2010년 10월 24일
- (3) 연구 리포트
 - ① 메이지(明治期)에 있어서의 죽도문제
 - 1878년 태정관지령 「죽도와 일도의 건은 본방과 관계없다(竹島外一島之儀ハ本邦關係無之)」를 둘러싼 여러 문제 (스기하라 다카시)
 - 1898년 한국배 조난사건에 대한 일고찰 (야마사키 요시코)

14) Web죽도문제연구소 (http://www.pref.shimane.lg.jp/admin/pref/takeshima/web-takeshima/takeshima04/kenkyuukai_houkokusho/takeshima04-02/)(검색일2016.9.12.)

② 전후에 있어서의 죽도문제

- 죽도영유권을 둘러싼 전후동향에 대해서 (나카노 테쓰야)
- 제2차세계대전후 시마네 현과 죽도 (후쿠하라 유지) (「죽도/독도연구에 있어서의 제삼의 시각」 해제)
- 부기 「본 보고서115~118페이지 게재 『의견』 에 대해서」 (후쿠하라 유지) (上 「제2차세계대전후 시마네 현과 죽도」 와 동 데이터 22, 23페이지)
- 일한회담의 개시와 죽도문제 (후지이 겐지)
- 시마네 현의 어업자와 일한어업분쟁 (후지이 겐지)

③ 학교에 있어서의 죽도교육

- 시마네 현 내의 초·중학교에 있어서의 「죽도에 관한 학습」 의 실시상황 (마쓰다 가즈히코)

(4) 그 외

- 의견 「전후(昭和期)에 있어서의 시마네 현의 죽도문제의 대응 등」 에 대해서 (마쓰다 유(升田優))
- 자료 전후(昭和期)에 있어서의 시마네 현의 죽도문제의 대응 등에 대해서 (사무국)

3.2.4 제2기 「죽도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최종보고서」 (2012년 3월)¹⁵⁾

(1) 최종보고에 즈음하여

- 죽도문제의 해결을 저지하는 것 (시모조 마사오)

(2) 연구회 개최 상황

- 제6회 연구회/2011년 2월 6일~제10회 연구회/2012년 3월 27일

(3) 연구 리포트

① 메이지기(明治期)에 있어서의 죽도문제

- 1905년 일본에 의한 죽도영토편입조치의 법적성질- 「무주지 선점」 설을 둘러싸고 - (나카노 테쓰야)

② 전후에 있어서의 죽도문제

- 죽도문제에 대한 한국 주장의 형성 (후지이 겐지)
- 한국정부에 의한 죽도영유 근거의 창작 (야마사키 요시코)

15) Web죽도문제연구소 (http://www.pref.shimane.lg.jp/admin/pref/takeshima/web-takeshima/takeshima04/kenkyuukai_houkokusho/takeshima04-03/)(검색일2016.9.15.)

- 이승만 라인 선언과 한국정부 (후지이 겐지)
- ③ 학교에 있어서의 죽도교육
 - 초·중학교에 있어서의 「죽도에 관한 학습」의 추진상황~2011년도의 대응 및 2011년도의 실시상황~ (마스다 가즈히코)
 - 죽도학습 리셋 (중학생 대상)의 작성과 활용에 대해서 (이토 히로토시(伊藤博敏), 쓰네카구 사토시(常角敏), 야마구치 수시(山口修司))
 - 고등학교·특별지원학교에 있어서의 죽도에 관한 학습 추진상황 (우마니와 스미요(馬庭寿美代))
 - 고교에 있어서의 「죽도문제」 학습의 당연성에 대해서 (사사키 시게루 (佐々木茂))
- ④ 그 외
 - 에도기(江戸期)에서 소와기(昭和期)에 걸쳐서 죽도문제에 관련된 오키(隱岐)의 사람들의 궤적 (스기하라 다카시)
 - 울릉도우회와 『울릉도우회보』 (후지하라 유지)
- (4) 자료편
 - 한국의 역사교과서의 죽도문제관련 번역 (시모조 마사오)
 - 전후 (헤이세이기(平成期))에 있어서의 시마네 현의 대응 등에 대해서 (사무국)
- (5) 부록
 - 죽도문제연구회 [제1기] 최종보고서비판에 대한 코멘트 (쓰카모토 다카시)
 - 죽도학습리셋 「죽도~일본의 영토인 것을 배우다」 (죽도학습리셋 작성편 집회의)별책

3.2.5 제3기 「죽도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최종보고서」 (2015년 8월)¹⁶⁾

- (1) 제3기 시마네 현 죽도문제연구회의 「최종보고서」에 대해서
 - 제3기 시마네 현 죽도문제연구회의 「최종보고서」에 대해서 (시모조 마사오)
- (2) 연구회 개최 상황
 - 제1회 연구회/2012년 10월 28일~제10회 연구회/2015년 5월 24일
- (3) 연구 리포트

16) Web죽도문제연구소 (http://www.pref.shimane.lg.jp/admin/pref/takeshima/web-takeshima/takeshima04/kenkyuukai_houkokusho/takeshima04-04/)(검색일2016.9.15.)

① 전후에 있어서의 죽도문제

· 산인(山陰) 어업자와 한국—근해 저인망어업을 중심으로— (후지이 겐지)

② 학교에 있어서의 죽도교육

· 「죽도에 관한 학습」의 추진상황~2013·2014년도의 대응 및 실시상황~
(이토 나오시(伊藤尚史), 우에다 미치(植田道))

· 고교 일본사에 있어서의 「죽도문제」 취급에 대해서 (사사키 시게루, 우사
미 조시(宇佐美朝士))

③ 오키(隱岐) 조사보고

· 쇼와(昭和)초기에 있어서의 죽도어업의 실태—관계자에 대한 청취 조사를
통해서— (이미베 마사히데(忌部正英))

④ 그 외

· 1898년대 초에 시마네 현을 방문한 울릉도민과 홍재현의 허실 (이시바시
도모키(石橋智紀))

· 1907년 울릉도에서 대면한 진자이 요시타로(神西由太郎)와 심홍택에 관한 여록
(스기하라 다카시)

(4) 자료편

· 조선의 수산업개발에 관한 문헌목록 (1887~2014) (하라다 다마기(原田環),
후지이 겐지)

· 자료제공에 대해서 (사무국)

(5) 부록

· 경상북도독도자료연구회의 「죽도문제 100문100답(약출판)에 대한 비판」
의 객관적 검증 그 하나 (시모조 마사오) 그 둘 (후지이 겐지) 그 셋
(야마사키 요시코)

· “독도련”의 「시마네 현 지사에 대한 질문서 “독도20문”에 대해서 (쓰카
모토 다카시)

4. 좌장 시모조 마사오의 주장과 허구

시모조 마사오는 죽도문제연구회의 중심인물로 제1기부터 제3기까지 줄곧
좌장을 맡아온 사람이다. 이 장에서는 Web죽도문제연구소에 게재된 기고문을

알아보고 그중에서 일부를 발췌하여 독도에 대한 그의 주장과 허구를 살펴보기로 한다.

4.1. 약력17)

시모조 마사오는 일본의 역사학자로, 전공은 한반도의 역사와 문화이고, 시마네 현 「죽도문제연구회」 좌장으로 독도에 관한 연구로 잘 알려져 있다.

2010년 3월에는 홋카이도 교직원조합의 「독도는 한국령이다」라고 하는 견해에 관해서 유신정당(維新政黨)·신풍(新風)과 함께 공개 질문장을 송부하였다. 저서(공저, 편저 포함)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저서(공저, 편저 포함)18)

- 『일한 역사 극복으로의 길』 전전사, 1999년 8월
- 『다케시마는 일한 어느 쪽 것인가』 문예춘추<문춘신서>, 2004년 4월
- 『“다케시마”그 역사와 영토문제』 다케시마 북방 영토 반환 요구 운동 시마네 현민 회의, 2005년 3월
- 『발신 다케시마 진정한 일한 친선을 위해서 시모조 마사오·다쿠 쇼쿠대학 교수에게 듣다』 산인중앙신보사, 2006년 7월
- 『국제 개발학 입문』 와타나베 도시오(渡辺利夫) 편, 홍문당, 2001년 6월
- 『알고 있습니까? 일본의 섬』 자유국민사, 2002년 12월
- 『도해 섬나라 일본의 영토문제 격노하는 이웃나라, 무관심한 일본』 동양 경제신보사, 2005년 8월
- 『국경·누가 이 선을 그은 것인가? 일본과 유라시아』 이와시타 아키히로(岩下明裕) 편, 홋카이도대학 출판회, 2006년 6월

4.2. Web죽도문제연구소 기고문

죽도문제연구소에 게재된 시모조 마사오의 기고문은 총 88편이며 지금도 계속해서 연재중이다. 그 목록을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19)

17) 위키피디아 백과사전에서 발췌 (<https://ja.wikipedia.org/wiki/%E4%B8%8B%E6%A2%9D%E6%AD%A3%E7%94%B7>)(검색일2016.9.20.)

18) 앞의 책, 경상북도 독도연구기관 통합협의체 편(2017) p.166.

19) 앞의 책, 경상북도 독도연구기관 통합협의체 편(2017) pp.167-173.

(1) 조사연구

① 죽도문제연구회 보고서

- 제1기 「독도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최종보고서 2007년 3월
최종보고에 즈음하여 「[다케시마의 날] 조례로부터 2년」
- 제2기 「독도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중간보고서 2011년 2월
제2기 중간보고에 즈음하여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독도문제」
- 제2기 「독도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최종보고서 2012년 3월
제2기 최종보고에 즈음하여 「독도문제의 해결을 가로막는 것」
자료편
 - 한국의 역사교과서의 독도문제 관련 번역
- 제3기 「독도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최종보고서 2015년 8월
제3기 시마네 현 죽도문제연구회의 「최종보고서」에 대해서
부록
 - 경상북도 독도자료연구회의 독도문제 100문 100답에 대한 비판」의 객관적
검증·그 하나

② 연구스태프, 연구 협력원의 보고

- 『제군!』 2007년 9월호 (문예춘추) 기사 「일본의 영토 『다케시마』의 역사를 개찬
한 자들이여」 2007년 10월 2일
- 『정론』 2007년 10월호 (산케이신문사) 기사 「『사실인지 아닌지는 문제가 아니다』
라고 잘라 말한 한국 『독도본부』」 2007년 10월 2일
- 『정론』 2008년 2월호(산케이신문사)기사 「한국인 연구자와의 만남에서 통감한
『독도문제』의 불모」 2008년 1월 11일
- 독도 호칭 고찰 - 한국정부관 「독도: 6세기 이후 한국의 영토」 비판 - 『인문·자
연·인간 과학 연구』 제19호 2008년 3월 (다쿠쇼쿠대학 인문과학연구소) 2008년
7월 14일
- 『정론』 2008년 7월호 (산케이신문사) 기사 「한국판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
는 모임」 운동이 말하는 것」 2008년 7월 14일
- 『요미우리 퀴털리』 2008 여름호 통권 제6호의 전제 「한국의 새로운 역사교과서
와 독도문제」 2008년 12월 25일
- 『WEDGE』 2009년 5월호의 전제 「동해(일본해)가 지도에서 사라진다? 한국의

영터리 영토 공작」 2009년 6월 3일

- 「다케시마는 왜 계속해서 빼앗기는 것인가」 (다쿠쇼쿠대학 해외사정연구소) 『해
외사정 2011 · 4』 2011년 7월 7일
- 『정론』 2015년 5월호 (산케이신문사) 기사 「대만과 센카쿠는 불가분? 센카쿠를
노리는 중국 허팔백(嘘八百)에게 반론하다 2015년 6월 26일
- 「독도문제 일본 정부는 왜 대처하지 못했는가」 (외부 사이트) (산케이 디지털
iRONNA 게재) 2015년 8월 5일

③ 실사구시*~한일 양국의 가시, 독도문제를 생각한다~

* 사실에 입각하여 진리 · 진실을 탐구하는 것(고지엔(広辞苑)으로부터)

- 제1회 박세당의 『울릉도』 (2007년 12월 25일 게재)
- 제2회 김정호 이전의 『조선도』 (2008년 1월 7일 게재)
- 제3회 한국의 십만원권 「우산도는 독도(죽도)가 아니었다」 (2008년 1월 22일 게재)
- 제4회 동북아역사재단 제작의 교육용 영상의 오류 (2008년 2월 5일 게재)
- 제5회 한국 측에 의한 「죽도의 일도 일본과 관계없다」 의 해석 오류 (2008년
2월 26일 게재)
- 제6회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 와 나가쿠보 세키스이(長久保赤水)의 『일
본여지노정전도(日本輿地路程全圖)』 (2008년 3월 28일 게재)
- 제7회 한문투 표현으로서의 「차주(此州)」 (2008년 4월 3일 게재)
- 제8회 역사의 사실 (2008년 4월 30일 게재)
- 제9회 한국 독도연구센터 비판 (2008년 5월 9일 게재)
- 제10회 석도=독도설의 오류 (2008년 5월 20일 게재)
- 제11회 하야시 시헤이(林子平)의 「삼국접양도(三國接壤圖)」에 대한 한국측의 오
해 (2008년 6월 4일 게재)
- 제12회 「동북아역사재단」 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의 오해 (2008년 7월 14일 게재)
- 제13회 아사히신문 와카미야 요시부미(若宮啓文) 씨의 죄 (2008년 7월 30일 게재)
- 제14회 도쿄학예대학 교수 기미지마 가즈히코(君島和彦) 씨의 만용 (2008년 7월
30일 게재)
- 제15회 사실무근, 한국측의 「고유 영토론」 (2008년 9월 5일 게재)
- 제16회 역사적 근거가 결여된 「독도의 달」에 대해서 (2008년 11월 6일 게재)
- 제17회 1951년의 「총리부령 24호」와 「대장성령 4호」에 대해서 (2009년 1월 16일 게재)

- 제18회 황당무계한 호사카(保坂) 교수의 엉뚱한 의견과 「어린이와 교과서전국네트21」 등의 폭주 (2009년 3월 3일 게재)
- 제19회 문헌을 읽지 못하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시마네 현 비판에 대해서 (2009년 5월 12일 게재)
- 제20회 「동북아역사재단」의 어리석은 행동 (2009년 6월 15일 게재)
- 제21회 「박병섭 씨의 「시모조 마사오의 논설을 분석한다」(「독도연구」 제4호)를 반박한다」 (2009년 7월 23일 게재)
- 제22회 박병섭 씨의 「메이지정부의 다케시마 = 독도인식」(「동북아 문화연구」 제28호)을 반박한다」 (2009년 8월 7일 게재)
- 제23회 모리 유키야스(森幸安)의 「대마여지도(対馬輿地圖)」를 오독한 한국 연합통신의 보도에 대해서 (2009년 11월 7일 게재)
- 제24회 무덤을 판 한국정부, 『다케시마 = 독도 논쟁』의 영어판 발행에 대해서 (2009년 12월 4일 게재)
- 제25회 「아시아의 평화와 역사교육연대」의 의견 광고에 대해서 (2010년 3월 15일 게재)
- 제26회 「동북아역사재단」 주최의 「동해 독도 고지도 전시회」에 대해서 (2010년 4월 8일 게재)
- 제27회 한국측에 보이는 역사연구의 특징 (2010년 8월 4일 게재)
- 제28회 독도문제와 일본해 호칭문제 (한국 언론의 국제여론 공작) (2010년 8월 12일 게재)
- 제29회 산케이신문 인터넷판을 곡해한 한국의 독도연구의 현황 (2010년 8월 31일 게재)
- 제30회 「울도군 절목(鬱島郡節目)」에 대한 의문 (2011년 2월 9일 게재)
- 제31회 『독도, 울릉도에서는 보인다』를 간행한 동북아역사재단의 역사 왜곡 (2011년 3월 25일 게재)
- 제32회 한겨레신문 인터넷판 외무성의 고유 영토론 비판에 대해서 (2011년 4월 6일 게재)
- 제33회 「대일본국전도(大日本国全図)」와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의 오해 (2011년 4월 19일 게재)
- 제34회 사실무근, 한국의 「독도의 날」에 대해서 (2011년 12월 2일 게재)
- 제35회 독도문제의 봉인책으로서의 「동해」 호칭에 대해서 (2012년 6월 15일 게재)

- 제36회 센카쿠열도 문제와 일본의 대응 (2012년 6월 15일 게재)
- 제37회 「한국 동해안 리앙쿠르암은 한국령과는 관계없다. (2014년 10월 31일 게재)
- 제38회 「을서(乙庶) 제152호」에 대한 한국측의 오해 (2015년 3월 23일 게재)
- 제39회 『실측 청일한 군용정도(實測日淸韓軍用精圖)』에 대해서 (2015년 3월 23일 게재)
- 제40회 어원에서 본 이날 3월 9일 (2015년 3월 27일 게재)
- 제41회 센카쿠를 노리는 중국 허팔백에게 반론한다 (2015년 6월 26일 게재)
- 제42회 시헤이가 독도를 「조선이 주인이다」 라고는 하지 않았다 (2015년 7월 29일 게재)
- 제43회 「대일본사」(「오키국」 조)를 보도한 「헤럴드경제」의 오보 (2015년 9월 9일 게재)
- 제44회 경상북도의 「독도 포털」 비판 (2015년 9월 28일 게재)
- 제45회 한국의 독도연구, 역사전쟁에서 종교논쟁으로 (2015년 11월 11일 게재)
- 제46회 신용하 교수의 황당무계한 독도 강의와 이진명 교수의 기발한 논리 (2016년 1월 14일 게재)
- 제47회 이케우치 사토시(池内敏) 씨의 중공신서(中公新書)판 『독도』에 대해서 (2016년 6월 17일 게재)
- 제48회 석도 = 독도설의 오류 및 문세영 씨의 『조선어사전』 (2016년 9월 9일 게재)

④ 시모조 선생의 반론 리포트 「한국이 모르는 10 가지 독도의 허위」

- 제1회 「일본은 옛날부터 독도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습니다。」(일본 외무성)의 정당성 (2011년 6월 2일 게재)
- 제2회 「한국이 옛날부터 독도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근거는 없습니다。」(일본 외무성)의 정당성 (2011년 6월 20일 게재)
- 제3회 「일본은 울릉도로 건너가는 배가 있어 어로, 채집지로서 독도를 이용하여 늦어도 17세기 중엽에는 독도의 영유권을 확립했습니다。」(일본 외무성)의 정당성 (2011년 7월 20일 게재)
- 제4회 「일본은 17세기말 울릉도의 도항을 금지했지만 독도의 도항은 금지하지 않았습니다。」(일본 외무성)의 정당성 (2011년 9월 30일 게재)
- 제5회 「한국이 자국의 주장의 근거로서 사용하는 안용복의 진술은 많은 의문이 있습니다。」(일본 외무성)의 정당성 (2011년 10월 19일 게재)
- 제6회 일본 정부는 1905년 독도를 시마네 현에 편입하여 독도를 영유하는 의사

를 재확인했습니다.」(일본 외무성)의 정당성 (2012년 2월 7일 게재)

⑤ 「다케시마의 「진실」과 독도의 《허위》」

■ 제1회 『「일본의 공식지도에 독도는 없다」는 것은 당연함』 (2012년 5월 11일 게재)

■ 제2회 『「한국 고지도의 우산도는 독도」라고 하는 새빨간 거짓말』 (2012년 5월 29일 게재)

■ 제3회 『「고문서를 봐도 독도는 한국 땅」이 아닌 이유』 (2012년 6월 20일 게재)

■ 제4회 『「1905년 일본의 독도 편입은 무효」설의 날조』 (2012년 9월 4일 게재)

■ 제5회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독도를 한국 영토로 승인」했다는 허구』

■ 제6회 『「미국의 러스크 서한은 무효」사기』

(2) 팸플릿·연수

① 독도문제를 생각하는 강좌

■ 2009년 2월 22일 제9회 최근의 독도문제에 관한 논쟁의 쟁점에 대해서-외무성 「다케시마 10가지 포인트」에 대한 반론을 비판한다 -

■ 2010년 1월 24일 제4회 한국 국회 도서관이 간행한 『다케시마 = 독도 논쟁』의 문제점에 대해서

■ 2011년 2월 5일 제4회 「다케시마의 날」과 「센카쿠의 날」

■ 2012년 10월 27일 제4회 「일본 외교와 다케시마-센카쿠문제에 대해서」

■ 2013년 10월 26일 제4회 시마네 현을 목표로 한 한국 측의 논리

■ 2015년 1월 24일 제4회 독도문제와 한국의 「역사인식 문제」

■ 2016년 1월 24일 제4회 한국의 독도 연구의 현황과 그 한계

■ 2016년 10월 11일 특별강연회 「독도가 한국령이 아닌 이유와 그 역사적 근거」

② 연수회 등

■ 2007년 5월 27일 학습회: 다케시마의 날 조례로부터 2년

■ 2007년 8월 25일 제1회 「다케시마의 영토권 확립을 요구하는 모임 오키」: 「다케시마의 날」 조례의 의미

■ 2007년 8월 26일 죽도문제연구회~이해하기 쉬운 「독도문제」 현민 의식의 고양을 향해 ~: 「독도문제와 시마네 현」

■ 2008년 2월 22일 다케시마의 날 기념행사: 「한일 신시대와 역사문제 처리」

■ 2012년 10월 29일 시마네 마인드의 모임: 독도문제와 비즈니스 기회

4.3. 기고문에 나타난 독도에 대한 주장과 허구

시모조 마사오는 실사구시 제48회에서 「석도=독도설의 오류와 문세영 씨의 『조선어사전』(石島=獨島說の誤謬と文世榮氏の『朝鮮語辭典』)」을 기고하였다. 그의 주장과 허구에 대하여 반론을 제시하기로 한다.

한국측에서는 지금까지 1900년 10월 25일부 『칙령 제41호』(제2조)에, 울도군의 행정구역이 「울릉도 전체와 죽도(竹島)·석도(石島)」라고 명기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그 석도를 독도로 해석하여, 독도는 1900년에 한국령이 되었다고 하였고, 2016년 8월에 한겨레신문 등에 보도된 문세영 씨의 『朝鮮語辭典』 초판본의 발견이 석도가 독도인 것을 뒷받침하는 증거이다. 이 책을 발견한 「우리문화가꾸기회」에 의하면 『朝鮮語辭典』에는 [「독[名], 「돌」의 사투리, 石]이라고 되어 있고, 그것은 「당시 석도가 독도의 다른 명칭이었던 것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기술한 것에 대하여 시모조 마사오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였다.

그것은 『朝鮮語辭典』 관계자의 독단이다. 사단법인 「우리문화가꾸기회」는 이전에도 사실무근의 발언을 한 전력이 있다. 이번에도 또 같은 과오를 범하고 있다. 『朝鮮語辭典』의 같은 페이지에는 [독(獨)[名], 單獨의 약어]라는 기술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우리문화가꾸기회」 식으로 해석하면 「獨은 단독의 약어이다. 그 때문에 독도는 단독으로 존재하는 섬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독도라고 표기되었다. 따라서 이 [독(獨)]은 독도가 울릉군의 행정구역에 포함되지 않고, 석도가 아니었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같은 『朝鮮語辭典』의 기술을 근거로 하여 정반대의 해석이 가능한 것은 [독(名), 돌의 사투리, 石]에는 석도를 현재의 독도로 하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는 『칙령 제41호』의 성립과정을 장황하게 기술한 후 『칙령 제41호』가 공포될 때에 한국어적 표현이었던 섬목(島項)이 「반절차자(反切借字)」에 의해서 한자로 표기되면 석도가 되는 것이다. 『칙령 제41호』에서 울도군의 행정지역이 된 것은, 1882년의 이규원 이후의 울릉도의 강역(疆域)이다. 거기에는 섬목이나 죽도는 있어도 독도는 없었다. 그것을 황당무계한 어원론에 의거하여, 석도를 독도로 점점 더 격해진 것은 아전인수, 견강부회의 설이다. 앞으로 한국 측이 『칙령 제41호』의 석도를 독도로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울릉도의 강역이 「둘레 일백사십오리」가 아니었던 사실을 밝히고, 『칙령 제41호』가 공포되기 이전에, 석도가 독도라고 불렀던 확증을 문헌으로 보이는 것이다. 그것이 불가능하면 『칙령 제41

호』의 석도를 독도로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하물며 『朝鮮語辭典』에 [독(名), 돌의 사투리, 石]이라고 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을 근거로 『칙령 제 41호』의 석도를 현재의 독도라고 하는 것은 역사를 무시한 망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시모조 마사오의 주장은 고종 황제가 우산도를 독도로 개칭한 경위에 관한 기록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점과 석도에 관한 다른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파고들어 석도=독도라는 학설을 뒤집기 위한 억지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 전라도 이주민에 의해 돌섬이 전라도 사투리인 독섬으로 불렸고 이것의 한자표기로 석도였던 것이 독도로 옮겨가는 과정 중에 섬이라는 것이 돌로 된 것이 많고, 또 외로이 떨어져 있기도 해서 「독(獨)」이라는 한자를 채용한 예가 많은 것을 근거로 독도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은 상당한 설득력을 갖고 있다. 더욱이 돌의 사투리로 독이 쓰였다는 문헌자료로 『朝鮮語辭典』에 그 내용이 실려 있다는 것은 명백한 증거로 충분하다고 할 수 있는데, 시모조 마사오는 독이 돌의 사투리라는 것은 애써 외면하고 단독이라는 뜻만을 내세워 울릉도와 무관한 섬으로 간주하고 싶어하는 것이다. 맑은 날씨에는 울릉도에서 보이는 섬인 독도를 20세기에 이르기까지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혹시라도 무인도이기 때문에 관찰구역으로 명시하지 않는 문헌이나 지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섬 자체의 존재를 인식하지 않았거나 우리 땅과 무관하다는 증거는 될 수 없는 것이다.

4. 나가기

지금까지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선봉에 서있는 죽도문제연구회와 이 연구회를 이끌고 있는 시모조 마사오의 주장이 실려 있는 시마네 현 죽도문제연구소의 기사와 기고문을 살펴보았다.

시모조 마사오에 대해서 최장근 교수는 학자라기보다는 내셔널리스트로서 운동가라고 평가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시모조의 논리는 논리적이지도, 객관적이지도, 공정하지도, 학술적이지도 않

다. 다케시마가 일본영토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를 위해 한국영토론을 부정하고, 사료를 왜곡해석하고 영토문제로 다루고 있는 주변국가 즉 한국, 중국, 러시아의 입장을 전적으로 부정하고 비판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시모조의 논리의 특징은 먼저 본인이 어떤 달성할 목적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자료가 없으면 전혀 관계없는 예를 든다거나, 전혀 관계없는 자료를 갖고 와서 사용하여 마치 결론이 아주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논증된 듯이 본인의 주장이 옳다고 주장한다.²⁰⁾

또 제일 독도 연구자인 박병섭 씨도 시모조 마사오는 근본적으로 자료를 객관적으로 보려는 자세가 결여된 연구자로서의 자질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평가하였다.²¹⁾

이처럼 시모조 마사오는 독도영유권에 대해서 논리적인 반박이 아니라 억지주장을 펴고 있으며 이번에 살펴본 기고문 「석도=독도설의 오류와 문세영 씨의 『조선어사전』(石島=獨島說の誤謬と文世榮氏の『朝鮮語辭典』)」에서도 「석도=독도」라는 우리 측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문세영의 『朝鮮語辭典』에 대해서는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왜곡된 주장을 일삼고 있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번에는 시모조 마사오의 주장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그의 주장이 실려 있는 목록의 나열에 머물렀지만, 그 기고문 하나하나에 대하여 그의 억지주장에 대한 허상을 낱낱이 밝혀 가는 것을 향후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참고문헌】

경상북도 독도연구기관 통합협의회 편(2017) 『독도 영토에 대한 일본의 영토 내셔널리즘 비판』 제이앤씨, pp.158-159, 166, 167-173.
 독도본부 엮음(2008) 『Web다케시마문제연구소 연구활동』 우리영토, p.10.
 독도본부 엮음(2008) 『다케시마문제연구회 중간보고서』 우리영토, pp.17-57.
 박병섭(2008) 「시모조 마사오의 논설을 분석한다」 『獨島研究』 4,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p.95-124.
 와다 하루키 외, 김원민 외 역(2015) 『독도 문제는 일본에서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가』 제이앤씨, pp.21-22.

20) 최장근(2015) 「독도에 대한 시모조 마사오의 왜곡된 사고논리」 『한국일본어문화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한국일본어문화회, p.396.

21) 박병섭(2008) 「시모조 마사오의 논설을 분석한다」 『獨島研究』 4,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p.122.

최장근(2015) 「독도에 대한 시모조 마사오의 왜곡된 사고논리」 『한국일본어문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한국일본어문학회, pp.391-396.

뉴스타파 2015.1.20. <http://newstapa.org/22977>(검색일2016.9.17.)

동아일보 2011.6.6. <http://news.donga.com/3/all/20110606/37800804/1>(검색일2016.9.20.)

시네마 현 Web죽도문제연구소 <http://www.pref.shimane.lg.jp/admin/pref/takeshima/web-takeshima>(검색일2016.9.12.)

울릉군발전연구소 <http://cafe.daum.net/baesangyong>(검색일2016.9.15.)

위키피디아 백과사전 <https://ja.wikipedia.org/wiki/>(검색일2016.9.26.)

YTN <http://www.ytn.co.kr/>(검색일2017.1.17.)

논문 투고 일자 : 2017. 04. 18.
논문 심사 일자 : 2017. 05. 10.
게재 확정 일자 : 2017. 05. 10.

 < 要 旨 >

 竹島問題研究会の実像と虚像
 - 座長下条正男を中心に -

孫京鎬

本稿は独島関連事業の運用において、比較対象とする日本島根県Web竹島問題研究所の運用状況を紹介し、活動の主軸である竹島問題研究会の実像と虚像を研究会座長下条正男を中心に考察したものである。竹島問題研究所に掲載された下条正男の寄稿文は、合計88編であり、今も継続して連載中である。その中から実事求是第48回で「石島=独島説の誤謬と文世榮氏の「朝鮮語辞典」」の寄稿文では、「独は単独の略称である。そのため、独島は単独で存在している島という意味で独島と表記された。したがって、この[独]は、独島が鬱陵郡の行政区域に含まれず、石島ではなかった「明白な証拠」である。」と主張している。しかし、全羅道の入植者によってドルソムが全羅道方言であるドクソムと称され、これの漢字表記で石島だったのが、独島に変わり移る過程の中で、島の中には石でできたものが多く、また寂しく離れていることもあって「独」という漢字を採用した例が多いことを根拠に独島と呼ぶようになったのは、かなりの説得力を持っている。さらに石の方言で使われた文献資料として「朝鮮語辞典」にその内容が載っているということは、明白な証拠として十分である。

 A real image and a virtual image of Takeshima Issue Study
 -focusing on Masao Shimojo -

Shon, Kyeong-Ho

This paper introduces the operational status of the Web Takeshima Issue Research Institute in Shimane Prefecture, Japan, as a comparative subject in the operation of the Dokdo related business, and presents the real image and the virtual image of the Takeshima Issue Study, which is the main axis of the activity, to Masao Shimojo. Masao Shimojo's article contributed to the Takeshima Issue Research is 88 pages in total, and is still ongoing in the series. The logic of the contribution of "Seokdo = Dokdo's error and Mun Se-Yeong's" Korean dictionary "among them is" stand alone abbreviation. It was written as Dokdo in the sense that it is a solely existing island. This is, therefore, "obvious evidence" that Dokdo is not included in administrative area of Ulleung-gun and Seokdo that did not exist. However, due to colonists in Jeolla-do, Dolseom was called Jeolla-do dialect, Dokseom, which was written in Kanji as Seokdo and changed to Dokdo in the process of moving. There are many things made of stones in the island, and it is also somewhat lonely apart that it has become quite convincing that I came to call it Dokdo based on the fact that there are many cases that adopted the Kanji "doku". Furthermore, clear evidence is sufficient that the contents are listed in the "Korean dictionary" as the reference material used in the word 'stone' as a dialect.